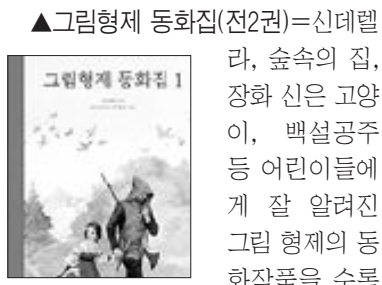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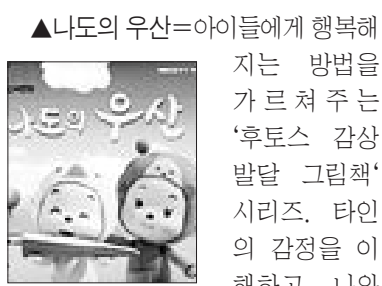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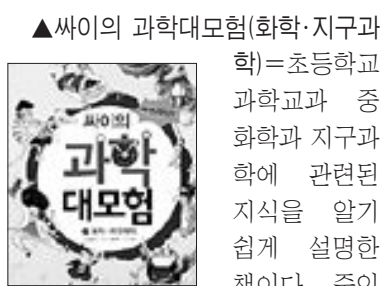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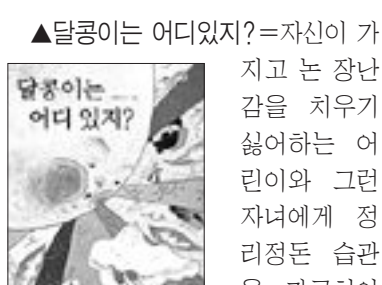
▲그림책 동화집(전2권)=신데렐라, 숲속의 집, 장화 신은 고양이, 백설공주 등 어린이들에게 잘 알려진 그림 형제의 동화작품을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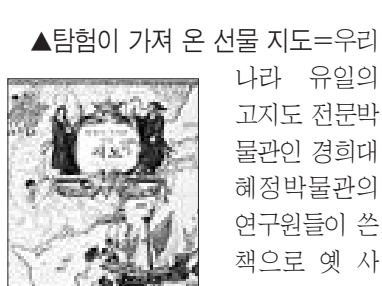
▲나도의 우산=아이들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후토스 감성 발달 그림책' 시리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친구를 받아들이는 법, 기쁘거나 슬픈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것 등이 소개돼 있다.



▲사이의 과학대모험(화학·지구과학)=초등학교 과학교과 중 화학과 지구과학에 관련된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주인공 공 사이일행은 과학원리를 이용해 화산재와 오염을 피해 시련을 이겨낸다.



▲달공이는 어디 있지?=자신이 가지고 온 장난감을 치우기 싫어하는 어린이와 그런 자녀에게 정리정돈 습관을 가르쳐야 하는 엄마의 심리적 갈등과 해결을 그렸다.



▲탐험이 가져 온 선물 지도=우리 나라 유일의 고지도 전문박물관인 경희대 해정박물관의 연구원들이 쓴 책으로 옛 사람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한겨레아이들·1만1천원〉

오직 1등만이 존재하는 세대 비판

승자 독식사회 로버트 프랭크·필립크 공저

올림픽 100m 우승자는 단 몇초 차이로 1등이나 되는 2위 이하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모든 '영광'을 차지한다. 하지만 '만일 바람이 불었거나 운동을 다른 것으로 신었다더라면 우승자가 바뀌었을'지도 모를 '미미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선수는 기억되지 않는다.



승자가 모든 보상을 싹쓸이하는 '승자 독식'은 스포츠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지난해 1천70만 달러의 상금을 획득한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



이 책은 미국에서 '승자 독식' 현상이 막 태동하기 시작한 1995년에 출간됐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중산층의 소멸, 비정규직 급증 등 2008년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저자들은 승자 독식 시장의 수혜자들이 받는 보상이 절대적 능력이 아닌, 상대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1992년 테니스 스타 슈테피 그라프는 상금으로 160만 달러를 벌었지만 모니카 셀레스에게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이듬해 모니카 셀레스가 칼에 찔려 활동을 중지하면서 그녀의 수입은 두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저자들은 승자 독식 시장의 수혜자들이 받는 보상이 절대적 능력이 아닌, 상대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1992년 테니스 스타 슈테피 그라프는 상금으로 160만 달러를 벌었지만 모니카 셀레스에게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이듬해 모니카 셀레스가 칼에 찔려 활동을 중지하면서 그녀의 수입은 두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경기력은 거의 변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또 하나, 승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극단적으로' 집중되고 재능이나 능력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소득 차이로 이어지는 것, 승자가 그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에 비해 과도한 보상을 차지하는 건 불공평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말한다.

저자들이 주목하는 건 승자독식사회의 폐해다. 승자독식 사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특정 분야로 끌어들여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게 만든다. 하지만 자신의 승상에 대한 완벽한 정보도 없이 '뒤늦게 경주에 나선 사람들'은 결국 또 다른 낙오자가 되고 만다.

경쟁 과정이 치열하다 보니 성공을 향한 몰불안 가라는 게임이 펼쳐진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도박에 빠져 드는 것이다. 운동 선수들은 스테로이드 복용이라는 약수를 두고 여자 체조선수들은 거식증에 걸리기 다닌다. 기업들은 상대 업체를 누르기 위해 천문학적 광고 비용을 쏟아부었고, 출판사들은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 마케팅에 사활을 건다.

또 특목고와 명문대를 지향하는 한국 학부모들의 예에서 보듯 '학벌'을 향한 과잉 투자는 끝을 모른다.

책은 마지막 부분에서 누진세 확대, 의료비 개혁, 교육개혁 증대, 선수 연봉 상한제, 조금 덜 일하는 사회 등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책 속의 대안이 해답은 될 수 없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몇가지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도 밝혀졌다.

하지만 이 책은 언젠가부터 '승자 독식 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대에서, 특히 '실용'을 앞세워 '1등주의'를 향하는 새 정권 하에서 한번쯤 우리 사회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역할을 함에 틀림없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안나 레이드의 '사면의 코드'

'시비르(Sibir)칸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던 몽골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한 결과 북쪽 스텝지역에 마지막으로 남겨졌던 나라 이름이다.

크림칸국과 함께 최후까지 러시아에 대항했던 이 자존심 강한 칭기스칸의 후예들은 결국 16세기 말 차르 이반 4세의 용병부대에 의해 함락되고 만다.

'사면의 코드-사라진 시베리아 왕국을 찾아서' 저자인 안나 레이드의 그 몰락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크림칸국은 러시아인들이 흑해 북쪽의 초원에 정착하는 걸 막았고, 시비르칸국은 나중에 시베리아로 불리게 될 대륙으로 이어지는 동쪽 수로를 차단했다. 시비르칸국의 몰락 시기는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 중의 하나다. 칸의 몰락과 함께 몽골의 스텝과 북극해 사이에서 러시아인들을 저지할 수 있는 나라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과연 경제학적으로나 당시의 세계 정세를 어렵잡아 보니 수긍이 가는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시비르칸국이 사라진 이후 러시아 용병들은 북쪽처럼 동진(東進)을 거듭했고, 제 50년도 지나지 않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건설했으며, 이후 수백 년간 시베리아는 '시비르'의 변용된 이름표를 달고 러시아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천지

러 원주민에 자행된 반달리즘



로 변모해 왔으니 말이다.

이 책은 그 세월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시베리아 사람들의 연대기를 담고 있다. 냉정하고 섬세하게! 그러나 그 행간에서 비치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무려 3세기 동안 원주민의 땅에서 자행된 반달리즘의 말초적 행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무더진 흔적들을 벗겨내는 떨림

이 오죽했을 터인가. 영국인 여성 사회학자의 고단한 발품과 통찰력이 돋보이는 이 책은 아시아를 주제로 내세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거창한 담론과 추진 주체들의 일력 과정에서 기운 빠져버린 광주 문화예술인들의 발길을 '의미 있게' 붙잡아줄 만한 책이라 여겨진다.

굳이 동질감 같은 연관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땅에 새겨진 역사와 현실이 가슴 아프게 끄덕거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와 탈근대의 담론과 관련해서도, 또한 수세기에 걸친 디아스포라의 문화인류사를 성찰하면서 정체성의 문제와 맞닥뜨리는 인문학적 고민과 관련해서도 이 책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저 막연한 시선을 넘어 무거운 의무감이 되고 거울이 되어 다가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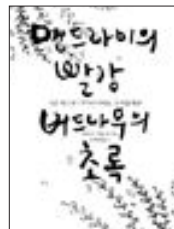
이 땅의 화가이자 문화활동가로 살아가는 나의 지적 욕구와 상상력의 공간을 생기기 채워 준 시베리아! 그 벅속까지 시리고 추운 광활의 공간에 남겨진 원주민의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아직 러시아가 짓밟지 못한 그들의 혼과 삶의 양식, 면면한 예술이 그 곳에 꿈틀거리고 있을 것이다. 안나 레이드는 그 땅의 후예들과 나란히 서서 웃음을 불러낸다.

"세상 만물은 모두 살아 있어. 랩프는 걸어 돌아다녀요. 집의 벽들은 각각의 목소리로 떠돌아. 방에서 쓰는 그릇들도 자신들만의 땅과 거처를 갖고 있고. 거방 속에서 잠자는 가족들은 밤이 되면 소곤거려요. 모지에 놓여 있는 사슴뿔들은 밤이 되면 일어나 언덕 주변을 줄지어 돌아다녀요."

허달용 <광주미래총 회장〉

'러브 미 텐더' 등 9편의 단편 소설집

맨드라미의... 에쿠리 가오리 지음



'냉정과 열정 사이' 등으로 국내에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소설가 에쿠리 가오리가 단편 소설집 '맨드라미의 빨강, 버드나무의 초록'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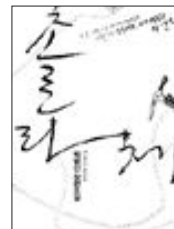
이번 작품에는 베스트 셀러 '반쪽 반쪽 빛나'의 10년 뒤 이야기로 알려진 표제작과 함께 치매에 걸린 아내를 위해 엘비스 프레슬리가 되어주는 남편의 이야기를 담은 '러브 미 텐더', 버릇에 물리고 나자 세상이 달라졌다고 믿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재난의 전말' 등 모두 9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그밖에 신문에 실린 부고를 보고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시미즈 부부', 일년에 한번씩 만나 장을 보는 세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묘한 장소' 등도 만날 수 있다. <소담출판사·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히말라야 조난 박정현·최강식씨 실화

출라체 박범신 지음



소설가 박범신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발표했던 디지털 연재소설 '출라체(cholalte)'가 출간됐다. 출라체는 6천440m 높이 에베레스트 보다는 낮지만 훨씬 가파르고 사나워 '죽음의 지대'로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의 한 봉우리다.

저자는 지난 2005년 출라체 북벽에서 조난을 당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산악인 박정현, 최강식씨의 실화를 소설의 모티브로 삼았다. 소설은 가난 불행한 가정사로 양심이 깊었던 두 형제가 외롭게 몸을 얹어 목숨을 의지하며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그렸다.

여러차례 히말라야 등반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저자가 소설 속 주인공들이 북벽에서 겪는 6박7일간의 조난과 생존 과정을 긴박감 넘치게 묘사했다. <푸른 숲·9천800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containing multiple sections: '대인동상업부동산', '일가공인중개사',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지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nd '한일지도판매(주)'.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